



“아빠의 어릴 적 꿈을 띄워보렴”

정월대보름을 앞둔 며칠 전 광주시립미술관 앞마당에서 다정한 모습으로 연날리기를 하고 있는 부자(父子)를 만났습니다. 환한 미소가 폭넓은 부자는 호흡도 척척입니다. 아버지는 논두렁에서, 너른 들판에서 연을 띄웠던 경험을 살려 하늘 높이 연을 띄웠습니다. 실타래를 넘겨받은 아이는 노련한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살살~ 실을 풀어가며 연날리기에 성공했습니다. 연날리기가 생소한 아이는 하늘을 휘휘~ 나르는 연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아버지는 하늘에 오색찬란한 연들을 날리던 코흘리개 시절이 그립습니다. 사글파리 바른 연줄로 힘겨루기를 하던 친구들의 모습도 눈앞에 선명합니다. 연이 하늘로 차고 오를 때 손에 팽팽하게 감겨들던 연실의 느낌은 여전히 가슴 두근거리게 합니다.

공공 언 손에 입김을 불면서 시퍼렇던 겨울 하늘에 별이 총총히 자리 잡을 때까지 연날리기를 하던 아이들은, 그때의 자신의 모습을 빼닮은 아이의 어머니·아버지가 되어 있었죠? 요즘 아이들은 높다란 건물 틈새, 얽혀있는 전깃줄 사이로 하늘을 뚫는다. 아침부터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강행군에 하늘 올려 볼 시간도 빠듯합니다. 연날리기는 책에서나 보는 옛날 얘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겨울 바람이 아직 매섭습니다. 옷깃을 여미게 하는 바람이지만 근사하게 연을 날릴 수 있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주섬주섬 연을 만들던 기억을 살려, 아이들과 함께 만든 연을 들고 탁 트인 자연으로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1/4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리빙 센스

감기에 좋은 차

늦겨울 추위에 감기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감기에 좋은 전통차 한잔 어떨까요?

▲유자차
열을 내리고, 기침과 편도선이 부었을 때 좋습니다. 냄비에 설탕과 물을 넣고 달여 시럽을 만든 뒤, 유자를 적당한 두께로 썬다. 용기에 유자를 눌러담은 뒤 설탕 시럽을 부어 냉장고에 20일 가량 보관하면 됩니다.

▲생강계피차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에게 좋고 오한, 해열에 효과가 있습니다. 얇게 썬 생강과 물에 잘 씻은 통깨피를 함께 끓여주세요.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인 후 오랫동안 달여주세요. 건더기는 체로 거른 뒤 국물에 황설탕을 타서 마시면 좋습니다.

▲생강대추차
목이 갈갈하고 기침이 날 때 마시면 좋습니다. 끓이는 방법은 생강계피차와 동일합니다. 완성된 차에 황설탕을 넣어 녹인 후 잿이나 대추를 띄워내면 좋습니다.

오늘의 유머

■결혼 때문에
갖 결혼한 남자가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털어놓았다.
“결혼이 이렇게 세계관을 바꿔놓을 지 몰랐어.”
“무슨 말이야?”
“결혼 전엔 온 세상 여자가 다 좋아.”
“근데 지금은...?”
“지금은, 한 명 줄었어.”

■환각 증세
어느 정신병원에 한 청년이 찾아와 환각상태에 시달린다고 호소했다.
의사가 그 청년을 진찰대에 눕게 하고 물어 보았다. “지금은 뭐가 보입니까?”
그러자 청년은 창 쪽을 보며 숨이 넘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예쁜 간호사가 옷을 벗고 있어요.”
그러자 의사가 얼른 청년을 일으키며 말했다.
“비켜! 나도 한번 누워 보게.”

■친절한 쪽지
한 여성이 백화점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쇼핑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헤드라이트가 깨져있고 차 옆면도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다. 그리고 와이퍼에는 쪽지가 끼워져 있었다.
“주차하러다 당신 차를 손상하고 말았소. 주변의 목격자들이 지금이 쪽지를 쓰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소. 그들은 내가 분명 내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있다고 생각할 거요 그럼, 이만...”

■도둑의 유언
어느 도둑이 큰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아내에게 유언을 남겼다.
“여보!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내가 당신에게 보물을 하나 주겠소.”
그러자 아내가 물었다.
“그게 뭐예요?”

“보석이에요.”
그러자 아내가 더욱 가까이 앉으며 물었다.
“그게 어디 있는데요?”
“응, 옆 동네 김회장집 장물 세 번째 서랍에 있네.”

■명 의사
환자 : 의사 선생님, 제 귀에 이상이 있나봐요. 요즘 들어서 제 방귀소리조차 잘 들리지 않거든요.
의사 : 그러면 식후에 이 알약을 꼭 두알씩 복용하십시오. 금방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환자 : 그럼 이게 귀가 좋아지는 약인가요?
의사 : 아뇨, 방귀소리를 크게 하는 약입니다.

■철없는 딸
딸 : 아빠 나 결혼할래요.
아빠 : 그 사람이 널 사랑하니?
딸 : 그런 그 사람이 아니고요.
아빠 : 그럼 너 그 사람을 사랑하니?
딸 : 아빠 그런 제 일이고요.

아빠 : 그럼 너희 어떻게 살려고 하니? 학생이라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딸 : 그야 아빠 일이지.

■부부싸움
드라이브를 나갔던 부부가 사소한 일로 크게 싸웠다.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차창 밖으로 개 한 마리가 얼얼 거리는 게 눈에 띄었다. 남편이 빈정거리며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 친척이잖아, 반가웬데만 인사나 하지.”
그러자 아내가 큰 소리로 개에게 소리쳤다.
“안녕하셔요! 시아버님!!”

■노인과 보청기
노인 두 명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봐, 나 보청기 새로 샀어. 엄청 비싼거야”
다른 노인이 부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얼마인데?”
질문을 들은 노인은 손목시계를 보더니 대답했다.
“12시!”

강주 기우회 대항전

백 30으로 삼삼에 쳐들어 왔을 때 흑 31 쪽에서 막는 것이 또 의외였다. 이 수로는 상변이 비어있기 때문에 32 쪽에서 막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김종길 5단 오늘날라 상식을 버리고 변칙과 호방한 수를 연달아 선보이고 있다. 흑 37도 실속이 없다 하여 최근에 거의 쓰이지 않는 수였다. 이 수로도 '참고도'의 흑 1로 상변을 막고 싶다. 그러면 백 2로 찌혀 오더라도 6가지 된 다음 7에 막는 것이 흑의 선수가 되며 9까지 얼마든지 싸울 수 있

강력한 반발 4보(30~48)

白 기용성 5단 (오로회)
黑 김종길 5단 (광유회)

는 모습이다. 그러나 김종길 5단은 상변이 텅 비어 있어 실속이 없다고 보고 37로 둔 것 같다. 기용성 5단은 백 38로 뛰어 땅굴파기를 시도했는데 이 수로는 그냥 42로 두어 우하귀를 굳히고 싶다. 상변은 흑이 39로 막아오더라도 얼마든지 싸움이 가능하다. 흑 47이 봉쇄의 맥점인데 기용성 5단 48로 찌혀 강력하게 반발한 장면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한상훈 LG배 결승 첫승

한상훈 2단이 제12회 LG배 세계기왕전 결승 첫 경기에서 이세돌 9단을 꺾고 우승에 한 발 다가섰다. 한상훈은 25일 서울시 여의도 LG트윈타워 본사에서 열린 이 대회 첫 대결에서 이세돌을 상대로 260수만에 백돌 계승을 거뒀다. 한상훈은 초반부터 단단하게 실리를 챙긴 이세돌의 행마에 맞서 막판 하변 전투를 이기며 순간간에 승부를 결정지었다. 이 대회는 제한시간 3시간, 초읽기 1분 5초이며 상금은 2억5천만원, 준우승 8천만원이다. 27일 같은 장소에서 2국을 갖고 한상훈이 이기면 우승을 차지하며, 이세돌이 승리하면 28일 마지막 경기를 펼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2월 26일(음 1월 20일 丙申)

36년생 서두르면 실패한다. 48년생 밖은 시끄러워도 자신은 편안하다. 60년생 부부간에 서로 이해와 배려에 노력해야 한다. 72년생 부부간의 사소한 언쟁이 있으나 애정은 새롭다. 84년생 식구가 늘어나는 경사가 생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09, 28

37년생 모든 지혜를 총 동원하면 해결된다. 49년생 지나간 일이지만 다시 새겨봐야 하리라. 61년생 능력을 발휘하나 가슴은 답답하다. 73년생 늘 생각하고 있던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85년생 의욕을 삼가 하면 역을 면한다. 행운의 숫자: 21, 44

38년생 일보전진을 위해 이보후퇴를 해도 늦지 않다. 50년생 결정을 내렸어도 다시 점검을 해보라. 62년생 뚜껑기보다는 조용하게 타이르며 순응한다. 74년생 이리저도 저리저도 못하는 형국에 빠진다. 행운의 숫자: 02, 31

39년생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서지만 험악하다. 51년생 하루 종일 바쁘지만 소득은 기대마라. 63년생 부부간에 오해가 생길 일이 생길 수도 있으나 큰일은 없다. 75년생 자신을 모함 고자질하는 중간 사람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15, 24

40년생 건강을 다스리지만 점검해보는 것이 좋으리라. 52년생 자신 있게 행동하면 큰 이익이 생기리라. 64년생 작은 병도 조심해야 한다. 76년생 가능한 변화는 주지 않으면 이익이 생기고 행운이 따른다. 행운의 숫자: 01, 42

41년생 상황은 어려워지만 마음은 편하다. 53년생 돈구름을 잡고 있는 모습이나 현실로 돌아오라. 65년생 금할수록 돌아가라. 77년생 설수예 오를 수 있으나 행동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06, 36

42년생 모았던 재물을 나눠가지면 복이 오리라. 54년생 친한 주변으로부터 모든 신뢰를 잃을 수니 경직하게 보라. 66년생 다 된 밤에 코 빠질까 걱정이다. 78년생 짧은 시간이라도 자신의 개발을 위해 투자하라. 행운의 숫자: 10, 40

43년생 눈치만 보다가는 명예에 먹칠하는 구실이 생긴다. 55년생 상전이 베풀어 되고 베풀게 살피니 자신을 돌아보라. 67년생 죽마고우의 친구를 잊지 말고 옛 정을 찾아라. 79년생 의외의 소비가 생긴다. 행운의 숫자: 22, 33

44년생 자식에게서 좋은 소식이 오니 행복하다. 56년생 기다리다 사람에게서 일찍이 소식이 온다. 68년생 평 먹고 알 먹는 좋은 일이 생기나 결과는 반반이다. 80년생 새로운 일이 생기나 실행하기는 아직 이르다. 행운의 숫자: 05, 45

45년생 어려움은 다투어도 슬기롭게 헤쳐 나간다. 57년생 잃을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처신해야 좋으리라. 69년생 산 넘어 산이니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하리라. 81년생 자신의 가치를 되찾을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하라. 행운의 숫자: 08, 38

46년생 옛것에 너무 얽매지 말고 새로운 길은 모색하라. 58년생 생 위장과 소화기계의 검진을 해보라. 70년생 독불장군은 없으니 상대방의 인격도 인정하면 좋으리라. 82년생 새로운 인생의 준비를 해보라. 행운의 숫자: 07, 27

47년생 밤길에 비단옷 입고 다닌 격이니 빛이 나지 않는다. 59년생 어려움은 다투어도 슬기롭게 헤쳐 나간다. 71년생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니 인내하라. 83년생 자신의 능력을 모험하는 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04, 23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1104>	오하오우 니혼고 <1104>	니하오 쑹구위 <81>	한자 이야기 <691>
<p>Is there a degree course about TESOL? TESOL(테솔) 학위과정이 있습니까?</p> <p>A: Do you need anything from www.tesolamerica.com? B: Is there a degree course about TESOL? A: I'll check. B: Thanks.</p> <p>A: www.tesolamerica.com에서 찾는 정보 있습니까? B: TESOL 학위과정이 있습니까? A: 확인해 보겠습니다. B: 감사합니다.</p> <p>* TESOL : 영어전문교사를 위한 영어교수법 과정 * 만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 Is there a person you would like to meet? * 내일 오실 수 있는 방법(교통편)이 있습니까? = Is there any way that you could come over tomorrow? * 자네 생일에 원하는 것이 있는 거지? = Is there something that you want for your birthday?</p>	<p>手にたこができちゃってるじゃない。 손에 못이 박혔잖아</p> <p>A : うちのこち、毎日毎日、素振(すぶ)りを1000回しるって言うもんだから、ほら、見てよ。 B : まあ、手にたこができちゃってるじゃない。皮(かわ)まで剝(む)けちゃって。 A : 痛(いた)くて、もうできないわ。「しろしろ」って言うのも、耳(みみ)にたこができるぐらい聞いて、いやになっちゃう。 B : テニス部って、大変ね。</p> <p>A : 우리 코치, 매일매일 라켓 스윙을 1천번이나 하라고 하니 자, 봐. B : 어머, 손에 못이 박혔잖아. 껍질까지 벗겨지고... A : 아파서 이제 못해. '해라 해라' 고 하는 말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어서 신물이 나. B : 테니스부는 정말 힘들군.</p> <p>素振(すぶ)り : 실제로 치듯이 목검, 라켓 등을 휘두르는 일(운동) 皮(かわ) : 껍질 いやになる : 아주 싫증이 나다, 신물이 나다</p>	<p>我遲到了。 늦었습니다</p> <p>A: 对不起, 我迟到了。 duìbuqǐ wǒ chīdào le. B: 你怎么现在才回来? nǐ zěnmě xiànzài cái huí lái? A: 因为今天下雨, 等车的人很多 yīnwèi jīntiān xià yǔ, děng chē de rén hěnduō. B: 那你应该早点儿出门。 nǐ nǐ yīnggāi zǎodiǎn chū mén? A: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B: 너는 왜 이제야 오는 거야? A: 오늘 비가 왔잖아.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어. B: 그러면 네가 얼찍 출발했어야지.</p> <p>迟到了 [chīdào] 작각하다 等 [děng] 기다리다</p>	<p>故郷(고향) 옛 고, 마을 향</p> <p>시민(市民)이 되어 고향(故郷)으로 돌아가는 전직 대통령에게 고향은 어떤 의미일까? “고향이 더러워도 못하는 신세~”의 실랑민(失禮民)에게 고향은 꿈에라도 찾아가고 싶은 정신의 안식처일 것이다. 그런데, 정치 일선에서 수장(首長)을 하던 정치인이 임기를 마치자마자 찾아가는 고향은 단순히 글자 뜻 그대로의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이며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라는 의미보다는 아닐 것이다. 이전의 전직 대통령들은 한결같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지만 국정(國政)에 그다지 관여할 수 없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 우리의 정치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언론과 경험을 되살리기는 쉽지 않다. 이에 '시민으로 돌아가 진정으로 시민들과 소통(疏通)하기 위한 귀향(歸鄉)'이라든, 전직 대통령의 민정(民情) 보살피기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의미의 고향이 창출될 것이다. 고향은 '古郷'으로, 고사성어(故事成語)는 '古事成語'로 잘못 표기하기 쉽다. 옛날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연속적 성격에는 고(故)를 사용하고, 일시적인 '옛날의 일'에는 고(古)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고의(故意)의 고는 '일부러'의 뜻이고, 고인(故人)은 고는 '죽은 사람'의 뜻이고, 사고(事故)의 고는 '일'이라는 뜻이다.</p>
<p><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p>	<p><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p>	<p><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앞)> ☎ 383-1605</p>	<p><한예원(韓藝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p>